

##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: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신탁 W 호(주식)

2. 효력발생(예정)일: 2016 년 9 월 23 일

### 3. 정정사유

- ① 환매수수료 삭제
- 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- ③ 투자대상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등 관련사항 반영
- ④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

### 4. 정정사항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<br>제 1 항 | <p>2. 법 제 4 조 제 3 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&lt;중략&gt;</p> <p>4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신용등급이 A2- 이상인 것(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 및 국내에서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</p> | <p>2. 법 제 4 조 제 3 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&lt;중략&gt;</p> <p>4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취득시 신용등급이 A2- 이상인 것(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 및 국내에서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</p>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 19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br>제 2 호 | 다.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.              | 다.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<b>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</b>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. |
| 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        | ④ <신설>   | ④ <b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 17 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b>   |
| 제 33 조(이익분배)                | ③ <신설>   |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 분배를 유보한다. 또한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분배를 유보한다.<br>1.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br>2.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|
| 제 41 조(환매수수료)               |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br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종류 | <b>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b>   |

|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            | <p>수익증권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C1 클래스 수익증권: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/li> <li>2. C2 클래스 수익증권: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/li> <li>3. C3 클래스 수익증권: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/li> <li>4. C4 클래스 수익증권: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/li> <li>5. C5 클래스 수익증권: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/li> <li>6. I 클래스 수익증권: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/li> <li>7. Ce 클래스 수익증권: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/li> <li>8. F 클래스 수익증권: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/li> <li>9. S 클래스 수익증권: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/li> </ol> <p>③ 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|   |
| 제 49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| <p>⑧ 제 5 항 및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⑨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</p>  | <p>⑧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⑨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</p> |

|    |      |  |
|----|------|--|
|    |      |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 |
| 부칙 | (신설) | 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41 조(환매수수료)는 변경시행일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|